

“저렴하고 효과높은 광고 앱 만들어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에 도움”



지난해 개발한 앱 '창업날개'를 선보이고 있는 매니아로그. 왼쪽부터 정효정·조규용·윤연식씨.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앱개발센터 입주

매니아로그

2008년 프로젝트팀 출발

지난해 창업 다양한 도전

웹과 앱의 유기적인 연동

광고 플랫폼 서비스 개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앱을 만들겠습니다.”
광주 동구 무등빌딩 광주스마트모바일 앱개발지원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매니아로그(Mania Log·대표 조규용). 매니아로그는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전인 지난 2008년, 전국적으로 뜻을 함께하는 학생, IT종사자 그리고 디자이너 등 8명이 스타디오투 형태의 프로젝트팀에서 출발해 지난해 본격적으로 창업한 업체다.
이 같은 이유로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4명의 팀원을 제외한 다른 팀원들과는 온라

인을 통해 앱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팀원들이 모인 만큼 ‘창업날개’, ‘중고책 교환’, ‘GFN 영어방송’ 등 독특한 앱을 개발해 안드로이드마켓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모전에서 금상을 거머쥔 ‘창업날개’는 1인 창조기업을 위한 각종 창업교육, 비즈니스센터 관련 정보, 자소서, 지식거래 등의 메뉴를 지원하고 있다. 또 웹사이트에서 지식거래가 가능토록 ‘아이디어 비즈니스’ 내의 프로젝트 거래를 조회도 가능

하며,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할 팀원 모집도 할 수 있어 창업준비자들에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조 대표는 “현재는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웹과 앱의 유기적인 연동을 이끌어내는 앱을 개발해 소상공인을 위한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즉 기존의 소셜커머스 정보와 스마트폰을 연계한 라이프 커뮤니티 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인 광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광고뿐만 아니라, 영업과 마케팅, 컨설팅까지 제공 가능한 리포팅 시스템까지 갖췄다는 목표에 비추는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 대표는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의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쟁력을 제공하는 앱을 기대해도 좋다”며 “앞으로 광고 솔루션 셀링분야에서 대표적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엠넷, ‘슈퍼스타K’ 온라인게임 공개

엠넷(Mnet)의 인기프로그램 ‘슈퍼스타K’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게임이 공개된다.

CJ E&M 게임부문은 엠넷(Mnet)의 대국민 스타 발굴 오디션 ‘슈퍼스타K’를 소재로 한 온라인게임 ‘슈퍼스타K 온라인’을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초이락게임즈가 개발하고 게임포털 넷마블이 서비스할 예정인 ‘슈퍼스타K 온라인’은 사용자가 직접 노래를 부르고 실력을 겨루는 온라인 노래 배틀 게임이다.

사용자들은 헤드셋과 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7000여 곡에 이르는 방대한 음원과 실제 가수의 안무를 그대로 구현한 댄스를 즐길 수 있다.

슈퍼스타K 모드, 노래방 모드, 댄스 모드 등으로 구분되며 이중 슈퍼스타K 모드는 사용자가 직접 심사위원으로 나서 다른 사용자들을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CJ E&M은 ‘슈퍼스타K 온라인’에서도



‘슈퍼스타K 시즌3’ 예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CJ E&M 관계자는 “이번 ‘슈퍼스타K 온라인’은 CJ E&M 통합 이후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첫 프로젝트”라면서 “제작 중인 ‘슈퍼스타K 시즌3’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슈퍼스타K 온라인’은 오는 22일 공식 홈페이지를 열고 비공개시범서비스(CBT)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가장 빨리 팔린 전자제품

‘키넥트’ 기네스북 등재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Xbox) 360용 동작인식게임 키넥트(KINECT) 판매량이 전 세계적으로 1천만대를 돌파하며 세계에서 가장 빨리 팔린 전자제품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고 10일 밝혔다.

키넥트는 북미 출시일인 지난해 11월 4일부터 2011년 1월 3일까지 60일 동안 800만대가 팔려나가며 하루 평균 약 133대의 판매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 기록은 ‘기네스 세계 기록 2011 게이머판(Guinness World Records 2011 Gamer’s Edition)’이 배포되면서 공식적으로 발표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남극 빙상은 밑에서 위로 얼면서 형성”

남극 대륙의 빙상(氷床) 중 상당 부분은 바닷물이 밑에서 위로 얼면서 형성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밑에서 위로 얼어 얼음의 두께가 수백m나 되고 전체 얼음 두께의 절반을 차지하기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BBC 뉴스가 보도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연구진은 지난 2008~2009년 사이 남극 빙상 밑에 숨어 있는 김부르체프 산맥의 대대적인 실측을 한 결과 빙상 밑에 액체 상태의 물이 얼어붙으면서 빙상이 점점 두꺼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이언스지 최신호에 발표했다.

이 연구는 빙상이 어떻게 확산되고 이동하는지, 더 나아가 남극대륙이 온난화에 따

라 어떤 변화를 보일지 추적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부르체프 산맥은 유럽 알프스 정도의 규모이지만 빙상 밑으로 몇 km나 내려간 곳에 숨어 있다. 연구진은 얼음을 투시해 암반 층까지 여러 층을 드러내는 레이더를 비롯, 첨단 장비를 갖춘 항공기로 지형을 실측했으며 이를 통해 산맥의 골짜기에서 액체형 물이 어떻게 드나드는지를 밝혀냈다.

눈이 표면에 쌓이고 수천년에 걸쳐 다져지면서 형성되는 빙상은 위에서 밑으로 커진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액체 상태의 물이 밑부분에 얼어붙으면서 빙상이 밑에서 위로 커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합뉴스

사람-침팬지 가르는 DNA영역 발견

사람과 DNA의 96%가 같은 침팬지를 사람과 구분하는 것은 유전자 발현 시기와 장소를 조절하는 특정 DNA 영역이 사람에게만 있고 침팬지에게는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9일 보도했다.
이는 생명체가 진화를 통해 얻게 되는 새

로운 특성 중 많은 부분이 유전자 자체가 아닌 DNA의 조절 영역 변화에 있음을 말해주는 새로운 증거이다.
미국 하워드 휴스 의학연구소와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은 인류의 고유한 특성을 진화시킨 특정 유전자 변화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침팬지와 마카크원숭이 등 다른 동물에

게는 있지만 사람의 게놈에는 없는 510개의 DNA 분절을 찾아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유전자의 기능을 바꾸는 분절은 단 한 개뿐이고 나머지 509개는 조절 염기순서가 위치한 유전자 주위의 DNA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이 가운데 소수의 분절을 조심스럽게 분석한 결과 다른 동물의 같은 영역에 있는 조절 DNA가 사람에게에는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DNA는 큰 뇌처럼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특징을 사람에게 부여하는 반면 쥐나 고양이와 감각모나 가지 돌진 음경과 같이 다른 동물에게 있는 부위를 사람에게서는 사라지게 하기도 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 발견으로 인간을 인간이게 만든 모든 진화가 설명될 수는 없지만 진화를 일으킨 특정 분자의 변화를 찾아낼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인간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차이 외에도 수많은 질병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 차이를 밝힐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엄마 미안해... 그리고
우리엄마여서 너무... 너무 고마워’
국민엄마 김수미·나문희

뮤지컬 **친정엄마**

광주 CBS
1961-2011 창립 50주년 기념 특별공연

2011. 3. 12(토) PM 3:00 ~ 13(일) PM 2:00
PM 7:00 PM 6:0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주최 **광주 CBS** 주관 **공연마루**

에매처 **광주은행** 전지점

협찬